

2013. 3. 25

#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13년 3월 2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#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- 전망이론적 논의 -

박지연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 
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

- 본 보도자료는 KDI가 발행하는 경제·사회 분야 학술지인 「한국개발연구」 제35권 제1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·요약한 것입니다.
-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견해는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, KDI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## 1. 문제의 제기

-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
  - 그러나 경제제재 혹은 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미흡
-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심리학 및 행동 경제학에서 발전된 전망이론(prospect theory)을 활용하여 경제제재와 지원의 효과를 분석
- 이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

## 2. 연구의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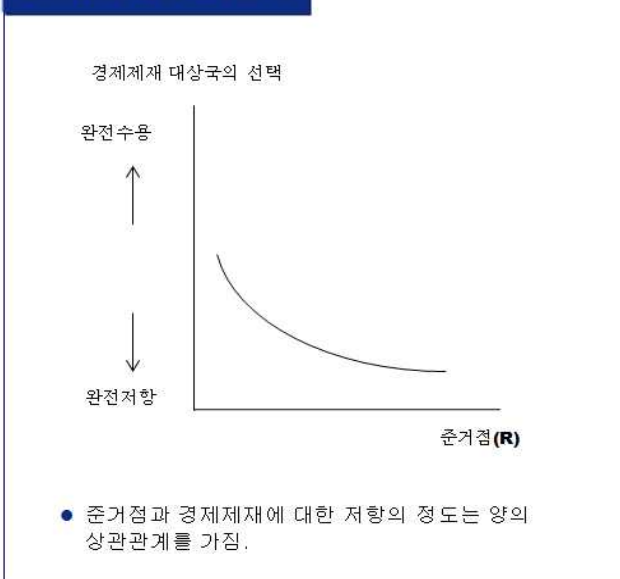
### □ 전망이론과 국제정치

-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카너만(Daniel Kahneman)은 트버스키(Amos Tversky)와 함께 실험을 통해 인간의 가치판단은 선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, 그 규칙성을 찾아내어 이를 전망이론이라고 명명
  - 전망이론은 의사결정의 여러 성향(예컨대 손실회피성, 민감도 체감성 등) 중에서 특히 준거점(reference point)을 강조
  - 예를 들어, A의 자산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하고 B의 자산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, 최종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A가 더 행복하겠지만, 실제로는 B가 더 행복
  - 여기서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상황, 즉 A의 경우 300만원, B의 경우 100만원을 준거점이라고 부름.
- 그동안 전망이론은 국제정치에서의 의사결정 분석에 주로 적용
  - 예를 들어, 1980년 미국 카터 대통령은 평화주의자였음에도 이란에 억류된 자국민 구출을 위해 군사력 투입을 결정
  - 이는 인질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정치·경제적 상황의 불안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지지도 하락이 급격화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
  - 즉, 의사결정자가 놓인 정치·경제적 상황 다시 말해, 준거점은 최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
- 본 연구는 전망이론을 경제제재 및 지원의 효과분석에 도입한 최초의 논문
  - 경제제재 혹은 지원의 대상국은 자국이 놓여있는 상황, 즉 준거점에 따라 제재 혹은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르게 내릴 것이며, 이에 따라 제재 혹은 지원의 효과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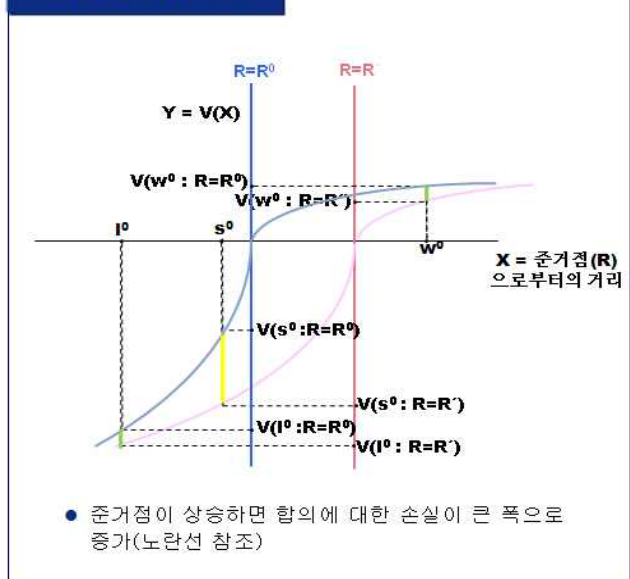
## □ 전망이론에 따른 경제제재 효과 분석

-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, 준거점이 상승하면 대상국의 제재에 대한 저항이 증가(즉, 경제제재의 효과 감소)
  - 대상국의 정치·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이면 경제제재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데, 이는 대상국이 제재를 수용한다면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
  - 전망이론의 가치함수로 설명하면, 준거점의 증가( $R^0 \rightarrow R'$ )에 따라 대상국은 제재 수용에 따른 손실의 변화( $V(w^0:R=R^0) - V(w^0:R=R')$ )를 매우 크게 인지하기 때문에 제재에 강하게 저항(그림 참조)

준거점과 대상국의 선택



준거점 변화의 효과



$s^0$ 는 수용에 대한 기대가치,  $w^0$ 는 대치 시 승리에 대한 기대 가치,  $l^0$ 는 패배에 대한 기대가치

## □ 전망이론에 따른 경제지원 효과 분석

-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, 준거점이 증가하면 대상국의 지원에 대한 수용 증가(즉, 경제지원의 효과 증가)
  - 대상국이 정치·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면 경제지원을 강하게 수용하는데 이는 대상국이 경제지원을 거부하고 상대국가와 대치 상태에 놓인다면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

## □ 전망이론과 대북 경제제재 효과

- 1990년대의 1차 북핵 위기와 비교해 2000년대의 2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은 경제제재에 대해 더욱 강하게 저항
  - 1차 북핵 위기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북한과 미국의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채택으로 종료
  - 그러나 2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은 보다 강화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, 핵실험으로 미국의 경제제재에 강하게 저항
- 전망이론적 논의에 따르면, 이는 1차 북핵 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2차 북핵 위기 시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, 즉 준거점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
  - 1999년 이후 경제성장을 플러스로 전환
  -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의 성공적으로 마무리
  - 중국과의 전략적 동맹 회복
- 즉,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제재에 대한 저항의 정도는 증가하였으며, 이것은 제재를 수용할 경우 1990년대 보다 2000년대 더욱 큰 손실을 전망하였기 때문

## □ 연구의 한계

- 본 연구는 퍼스트 무버(first mover)인 발의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대상국의 의사결정만을 분석
  - 즉, 경제제재 혹은 지원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게임이 아니라 하부게임(subgame)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
  -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경제제재 혹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논의 전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

### 3. 연구의 시사점

- 본 연구의 결과, 대상국의 국내외적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, 즉 준거점이 상승하는 경우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경제지원의 효과는 증가
  - 이는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및 2000년대 2차 북핵 위기에 대한 사례 분석에서도 입증
  
- 따라서 향후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내용뿐만 아니라 북한의 준거점 변화 역시 고려해야 할 필요
  - 식량난의 개선, 경제상황 호전, 세습체제의 조기 안착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준거점은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다 정교하고 강화된 제제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
  
- ❖ 문의: 박지연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(010-\*\*\*\*-\*\*\*\*)  
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(02-3277-4571)